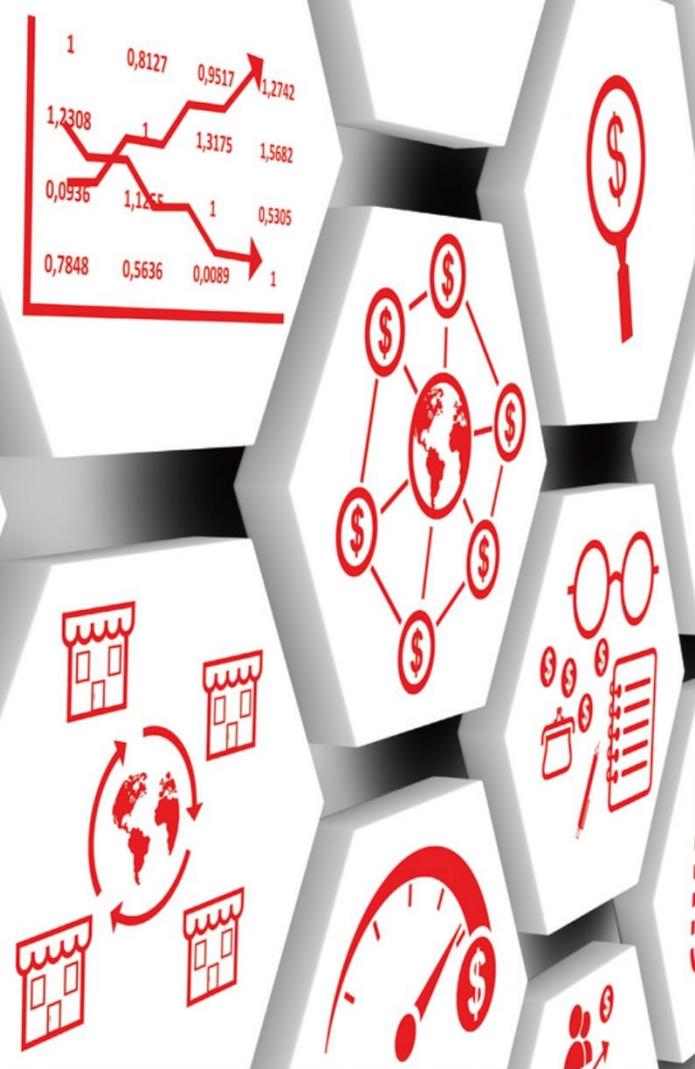


FICC 리서치부
2023. 2. 27

EMERGING MARKETS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전병하 (신흥국 채권)
02)768-7850
byunghajeon@nhqv.com

엄서진 (신흥국 채권 RA)
02)768-7021
eumsj@nhqv.com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1999년 이후 24년만에 재차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비극적인 재난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재난 고유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보수적인 추정치도 GDP대비 2%, 최악의 경우는 GDP대비 10%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대비 10% 정도의 피해는 과거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 당시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습니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지진 복구 특성을 고려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금리인하라는 인식에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5월 대선을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경우 리라화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흥국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 미국 경제지표의 서프라이즈로 금년 중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금리 상승. 신흥국 시장은 이에 그간 상승폭을 반납
- 신흥국 로컬채권 지수는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0.64%)과 금리 상승(+4bp)으로 하락 지속(-0.71%)
- 신흥국 달러채권 지수는 미국 금리 상승(+12.7bp) 영향에도 스프레드 축소(-10bp)되며 약보합(-0.10%)

신흥국 채권시장 주요 이슈

-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1999년 이후 24년만에 재차 강진이 발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비극적인 재난은 현 재진행형. 재난 고유의 특성상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보수적인 추정치도 GDP대비 2%, 최악의 경우는 GDP대비 10%가량의 경제적 피해를 예상. GDP대비 10% 정도의 피해는 과거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 당시와 유사한 규모.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 인하.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지진 복구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인 금리인하라는 인식에 시장은 안도. 하지만 5월 대선을 앞두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경우 리라화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

신흥국 채권시장 기타 이슈

- **멕시코 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2주 전 만장일치로 50bp를 인상하며 다소 매파적이었던 통화정책회의의 회의록이 지난 목요일에 공개. 이사회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최고점이었던 9월 8.7%보다는 하락한 모습을 보이며 고점을 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러나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8.4%내외에 머물면서 고점을 벗어나지 못함. 이에 대해 이사회 멤버 모두 근원 인플레이션에 우려 표명. 다만 대외 및 대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금리 인상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음을 제기

신흥국 채권시장 동향

선진국 금리 상승 영향에 숨죽인 신흥국 채권시장

- 미국 경제지표의 서프라이즈로 금년 중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금리 상승. 신흥국 시장은 이에 그간 상승폭을 반납
- 신흥국 로컬채권 지수는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0.64%)과 금리 상승(+4bp)으로 하락 지속(-0.71%)
- 신흥국 달러채권 지수는 미국 금리 상승(+12.7bp) 영향에도 스프레드 축소(-10bp)되며 약보합(-0.10%)

신흥국 시장 국가별 금리 및 환율, 신용스프레드 동향

국가	10Y (%)	1W (bp)	1M (bp)	YTD (bp)	1Y (bp)	2Y (%)	1W (bp)	1M (bp)	YTD (bp)	1Y (bp)	환율	1W (%)	1M (%)	YTD (%)	1Y (%)	Spread (bp)	CDS (bp)
브라질	13.51	26.62	42.95	82.50	201.90	12.83	22.24	-7.43	-5.03	82.86	5.20	-0.74	-1.13	1.62	-1.62	241.0	234.64
중국	2.91	2.40	-0.40	7.80	11.10	2.46	5.00	12.30	13.70	22.00	6.96	-1.33	-2.46	-0.89	-9.97	159.0	73.64
인도네시아	6.78	6.50	17.60	-13.40	27.60	6.39	11.30	60.30	49.70	216.30	15228	-0.12	-2.28	2.22	-5.82	134.0	98.05
말레이시아	3.91	2.50	18.30	-12.70	25.10	3.48	7.30	16.30	-16.70	78.40	4.44	-0.05	-3.50	-0.70	-5.46	99.0	70.89
멕시코	9.29	19.00	64.10	26.40	137.40	11.16	38.70	136.80	105.20	345.20	18.42	-0.25	2.32	5.55	9.87	355.0	118.05
남아공	11.17	0.30	79.60	37.80	131.00	-	-	-	-	-	18.43	-2.05	-6.61	-8.15	-20.47	357.0	263.79
태국	2.56	-5.10	8.80	-7.60	38.50	1.86	-1.50	21.30	22.90	124.20	34.94	-1.38	-6.51	-0.95	-6.87	-	73.64
아랍에미리트	4.37	6.60	31.70	14.10	180.90	97.65	-19.70	9.30	54.70	-108.10	-	-	-	-	-	109.0	37.14
튀르키예	7.27	2.00	14.00	-111.50	-565.50	10.39	-42.50	91.00	186.50	-725.50	18.87	-0.23	-0.35	-0.88	-31.23	497.0	574.79
폴란드	6.56	11.30	58.90	-28.70	250.30	6.28	-11.20	26.80	-39.30	238.00	4.47	-0.58	-3.20	-2.27	-7.84	75.0	95.95
미국	3.95	12.70	49.20	7.00	198.10	4.82	19.80	60.50	38.80	323.40	105.21	1.30	3.23	1.63	8.32	-	3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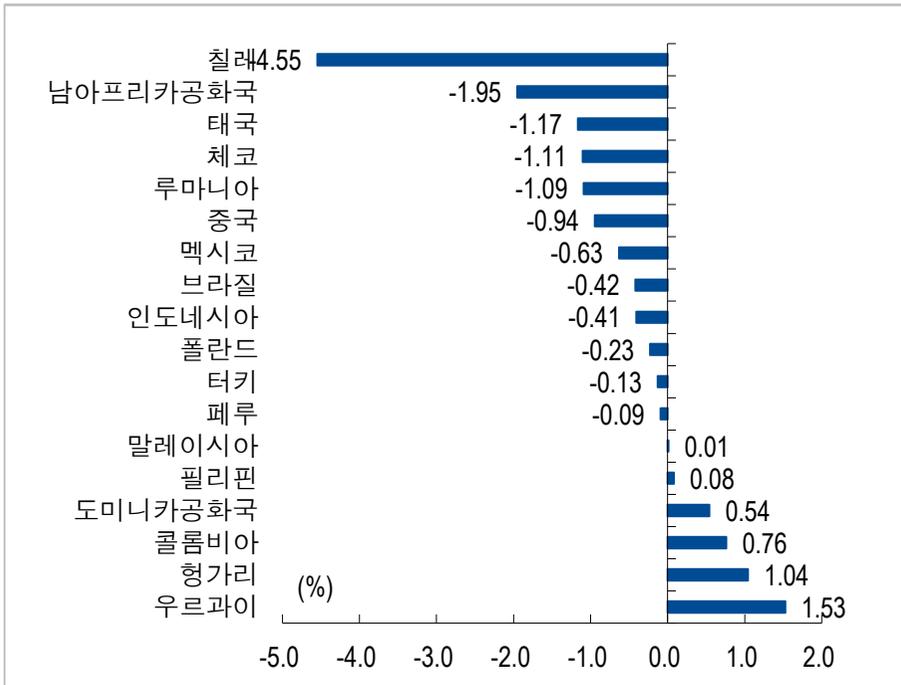
주: 환율의 경우 통화가치의 변동을 반영
 자료: Bloomberg, JPM,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지역 별 투자 성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원자재가격 부진, 성장 두려움 등은 신흥국 채권의 하락압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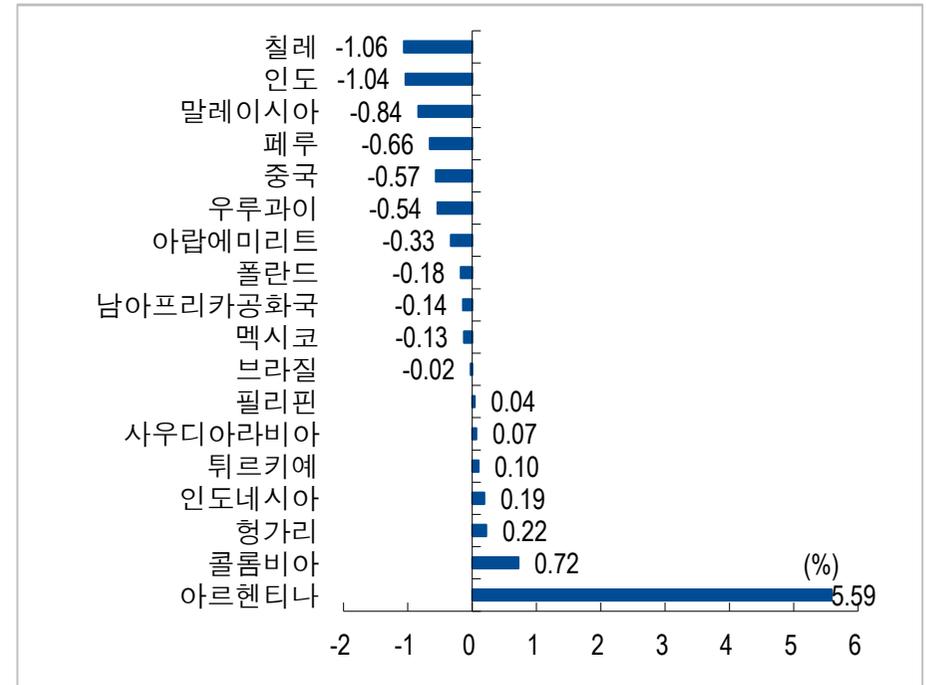
- ▶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미 연준이 기존에 알려진 것 이상의 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성장률에 민감한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했으며 이에 신흥국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소화했음
- ▶ 특히 칠레 폐쇄화, 남아프리카공화국 란드화의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성과 하락을 주도했음

신흥국 현지통화 표시채권 지수 주간 수익률 추이



자료: 연합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달러표시채권 지수 주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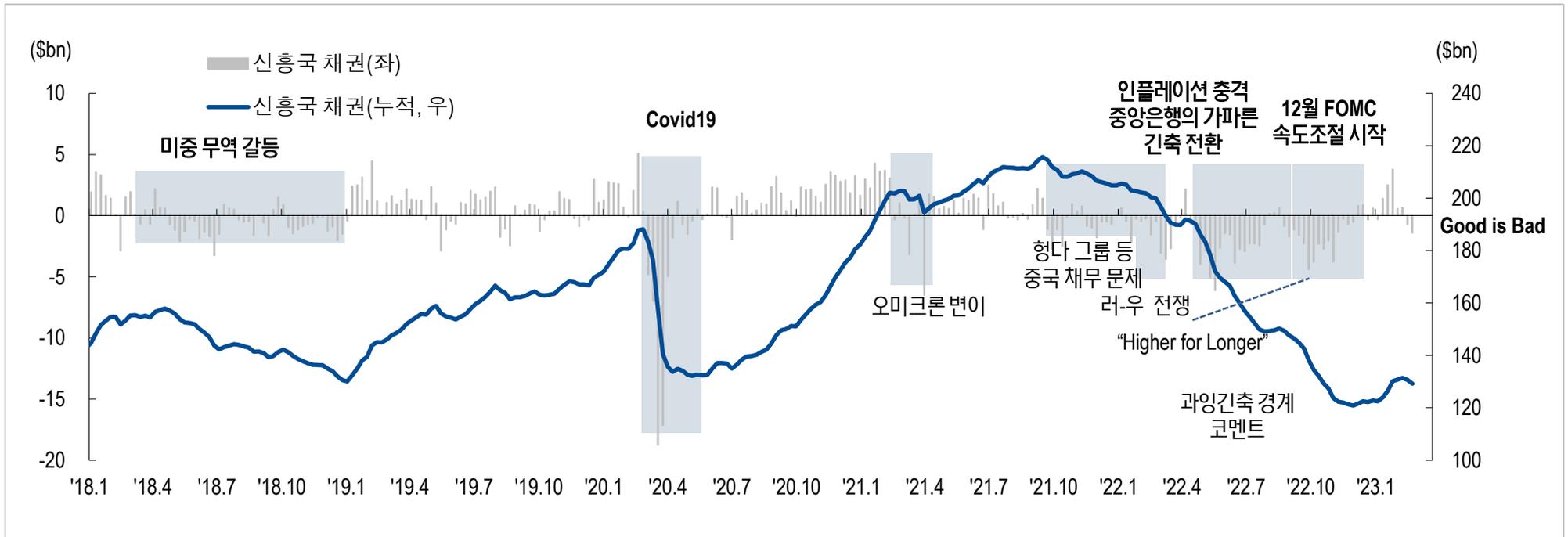
자료: 연합 인포맥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 동향

불안감은 신흥국 자금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

- ▶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미 연준의 추가 긴축 또는 긴축의 장기화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됨. 지난 3개월 간 가파른 반등세를 누렸던 신흥국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
- ▶ 3월 FOMC에서 미 연준의 의도를 확인하기 이전까지는 선진국 경제지표가 나빠지지 않는다면 신흥국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신흥국 채권 투자자금 흐름



자료: EPFR,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채권시장 주요 이슈: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5만명을 넘어선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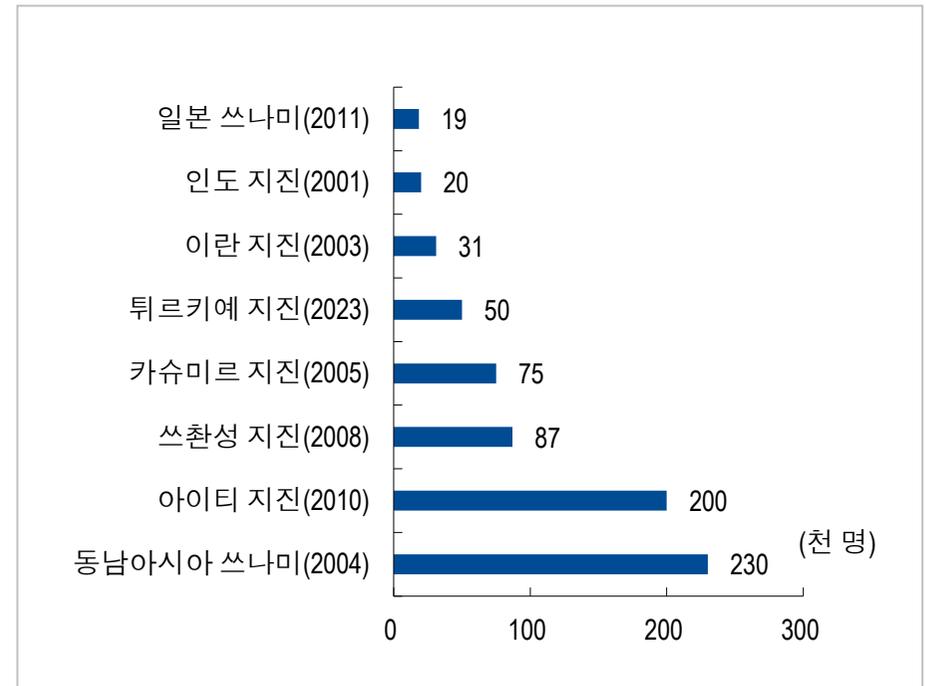
- ▶ 튀르키예 남부 및 시리아 북서부의 지진으로 2월 24일 기준 튀르키예 4.4만명, 시리아 0.6만명으로 총 5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 ▶ 6일 첫 강진 이후 9,000여차례 여진 발생하고 있어 첫 지진 발생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는 지속되고 있음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자료: USGS,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지진 피해는 21세기 손꼽히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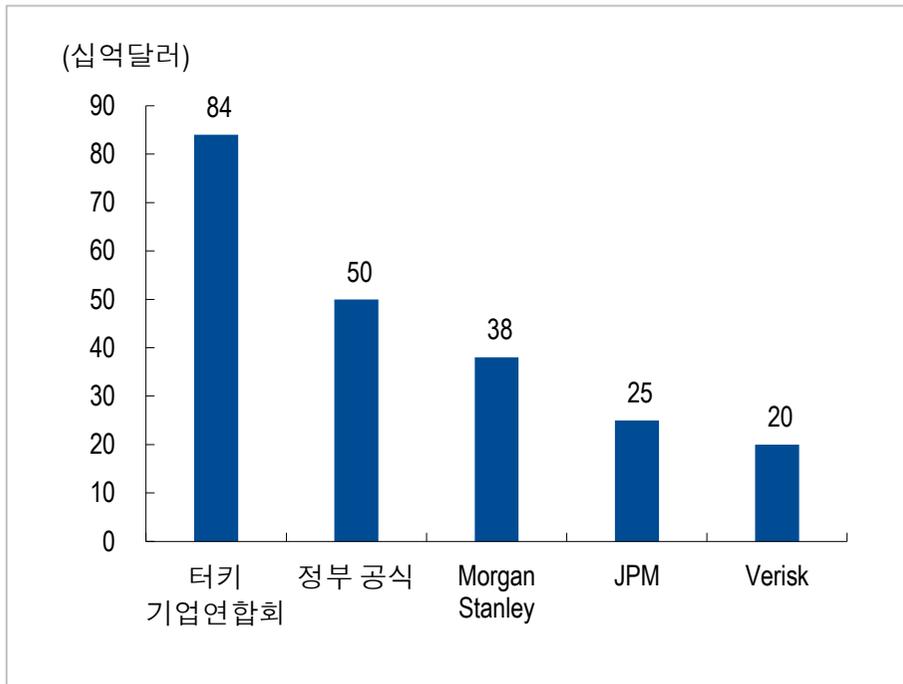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채권시장 주요 이슈: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복구 비용 추산, 튀르키예 1년 GDP의 10%에 육박했던 이즈미트 대지진 당시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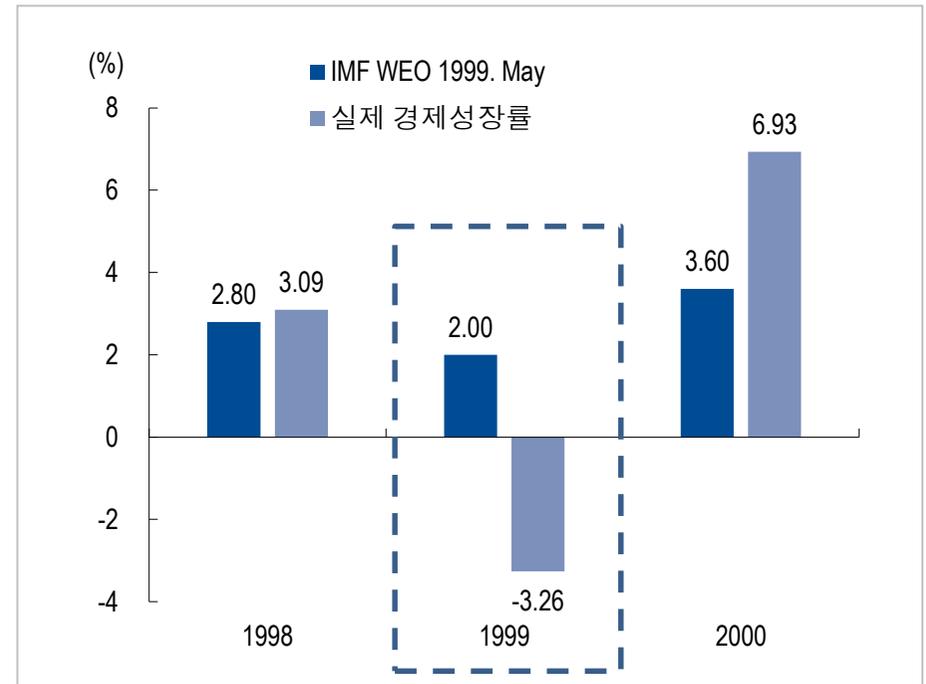
-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터키 기업연합측 추산에 따르면 840억달러(708억달러 주택, 104억달러 국가 수입, 29억달러 업무 차질), Verisk는 최소 200억달러로 GDP대비 2~10% 내외의 피해가 예상
- ▶ 1999년 이즈미트 대지진 당시 직접 손실은 65억달러, 경제적 피해는 230억달러로 각각 GDP대비 2%, 10%수준으로 현재와 비슷했음

각종 기관의 튀르키예 피해 및 복구비용 추산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1999 이즈미트 대지진으로 경제성장률 큰 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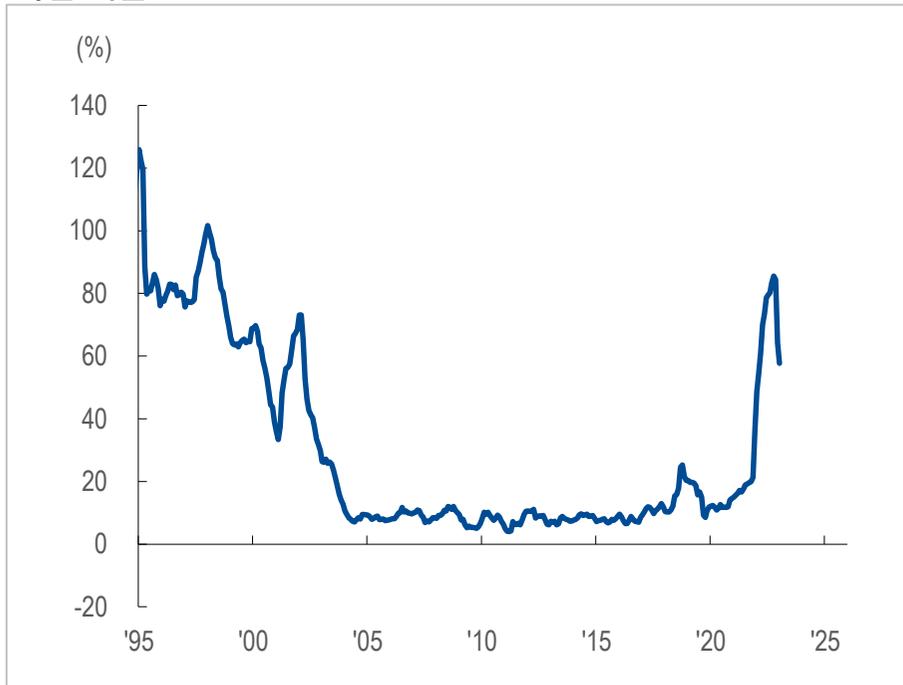
자료: IMF,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채권시장 주요 이슈: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경제적 상황은 대체로 당시와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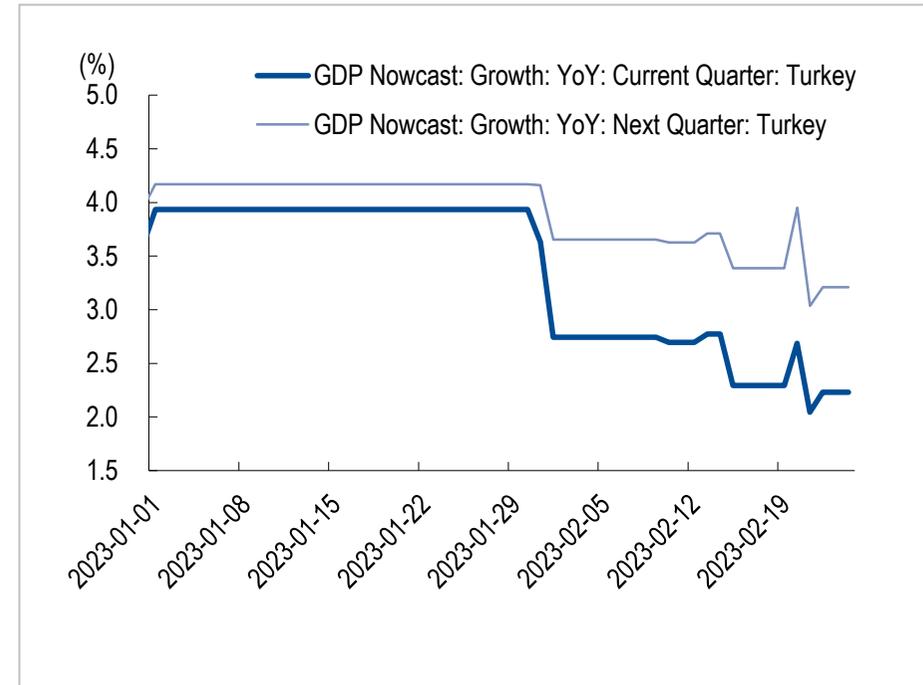
- 1997년 큰 폭 성장 이후 1998년 이후 점차 고인플레이션과 큰 폭의 재정적자로 은행시스템 취약성 등이 지적되던 당시 분위기와 현재는 비슷
- 최근에도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률은 빠르게 반등했으나 고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는 튀르키예 시스템 리스크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
- Nowcast에서는 이번 충격으로 분기성장률을 전년동월대비 1% 이상 하향했음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던 90년대 후반과 세자릿수에 육박한 최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GDP Nowcast에서는 이번 충격으로 분기 성장률을 1%p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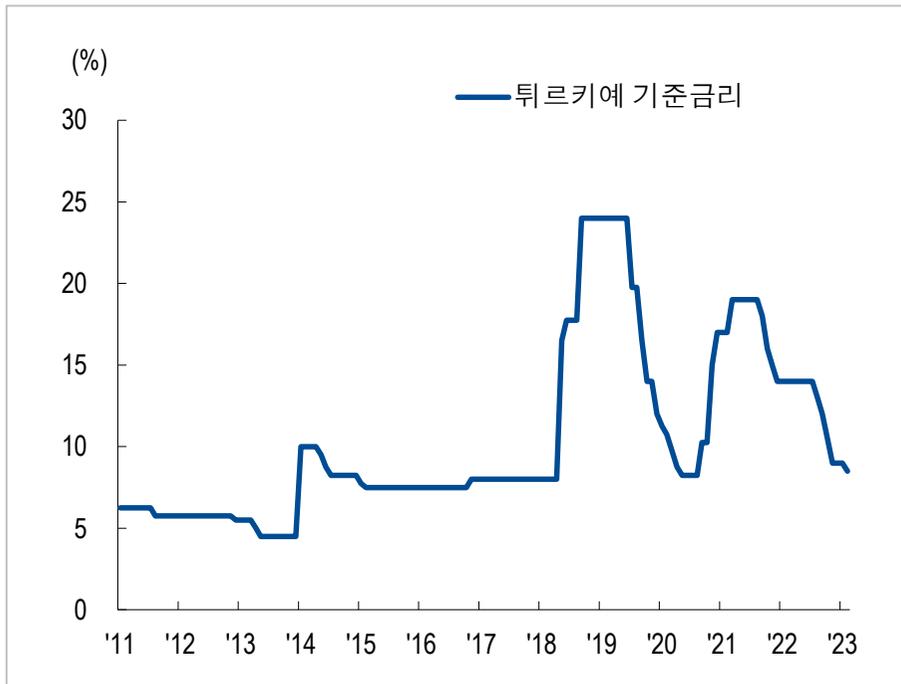
자료: Nowcastingeconomic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채권시장 주요 이슈: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50bp 금리인하로 우선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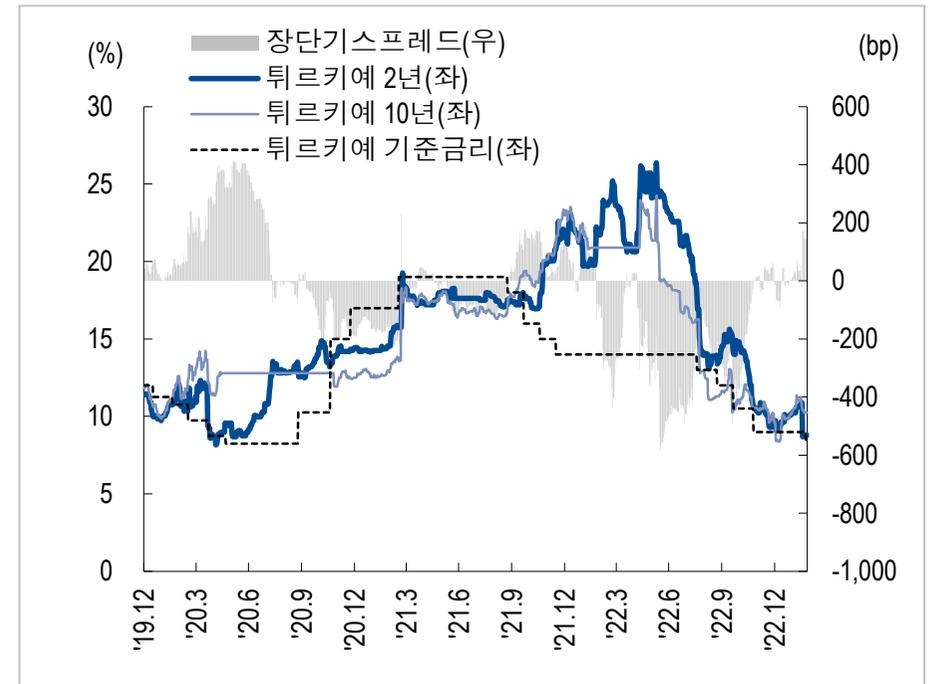
- ▶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50bp 금리인하로 우선 현재의 충격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음. 최근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규모를 봤을 때 1% 금리인하가 예상되었으나 0.5%p 인하에 그쳐 시장은 안도했음
- ▶ 이미 신용상태는 충분히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낮은 수준이며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평가됨

튀르키예는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은행권 매입 덕분에 리라화 금리는 안정적인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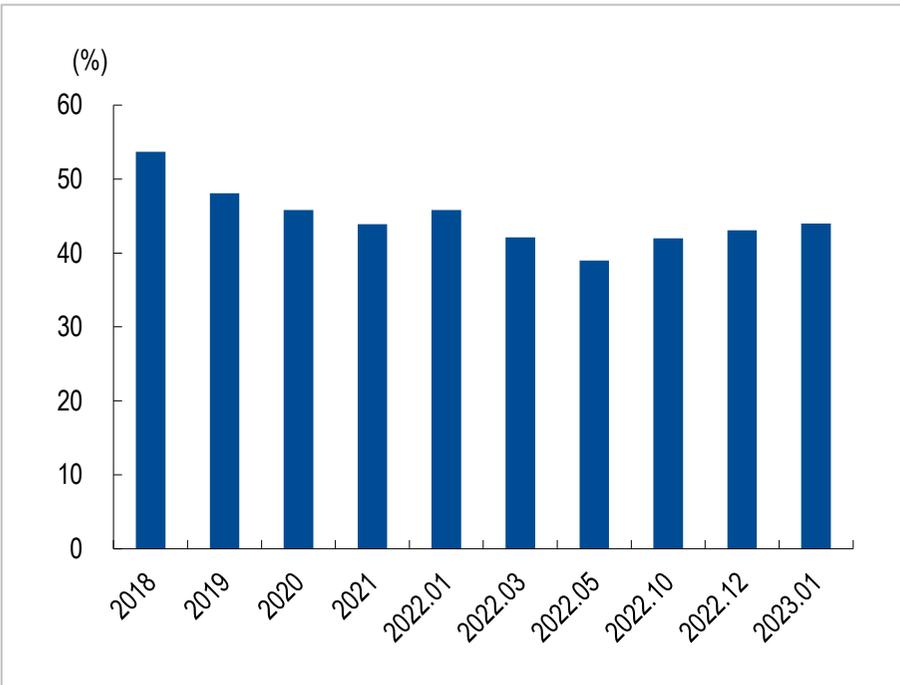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신흥국 채권시장 주요 이슈: 지진과 튀르키예 금리인하

5월 대선을 앞두고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지게 된다면 리라화는 약세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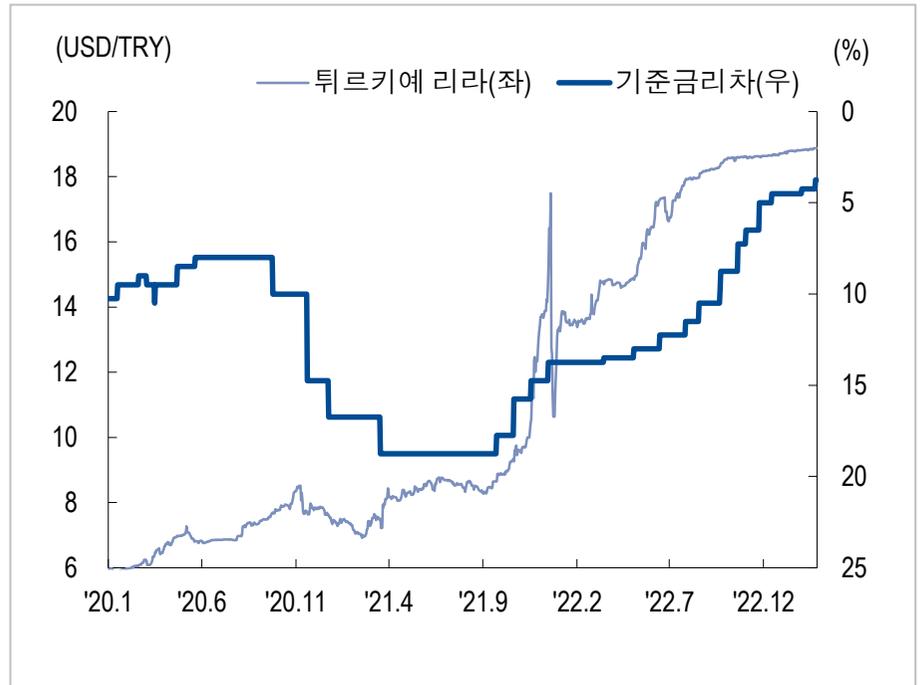
- 2023년 5월 튀르키예는 대선을 앞두고 있음. 2022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으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던 중이었음
- 이번 지진으로 인해 지지율의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5월 대선을 앞두고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게 된다면 재정지출과 금리인하로 인한 재정책대,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되며 리라화는 추가 약세를 보일 것

에르도안 지지율 추이



자료: Center for Social Impact Studie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예상보다 낮은 기준금리 인하로 리라화 하락폭 상대적으로 낮음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중국 - 중앙정치국 위원 왕이 모스크바 방문

RA 엄서진(02-768-7021)

중국 금융시장 지표 변동



	2/24	1주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채권(10Y)	2.91	2.4bp	-0.4bp	11.1bp	7.8bp
주가지수	3,267.16	1.34%	0.07%	5.76%	5.76%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ummary

- 최근 중국의 중앙정치국 위원 왕이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진행. 이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주변 국가들을 직접 순방하며 결속 강화를 도모한 것을 견재하며 중-러 양국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 특히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등을 언급.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음. 특히 최근 미국과의 분쟁 등을 고려했을 때, 대외적으로 서방과 관계를 안정화 시킬 필요성 존재. 이에 중립적 입장을 강조해옴. 그러나 전쟁 1년으로 UN 특별회의,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등 러시아를 향한 제재와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왕이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가능. 특히 미국과 서방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하며 중국, 러시아 대 서방, 미국의 대립 구도강화

2월 21일 - 부동산 시장 민간투자 촉진 위한 파일럿 제도를 통해 1차로 3천만 위안 조달 목표
<https://bit.ly/3KpdUUJ>
 - 중앙은행 중국 일부 은행들에 2월 대출 증가율 조절 요구
<https://bit.ly/3KmUI55>

2월 22일 - 시진핑, 푸틴과 만남 위해 모스크바 방문 예정
<https://bit.ly/3SA7Ccf>

2월 23일 - 시장 기대 향상과 경제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한 계획 마련할 것
<https://bit.ly/3SpDctx>
 - 미국의 NATO 우방국 지지에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 왕이-푸틴 미팅
<https://reut.rs/3IO082e>
 - 미국 반도체 압박으로 시진핑 기초과학 육성을 통해 자립 강조
<https://bit.ly/3kkpk70>

2월 24일 - 미 재무장관 옐런 "중국, 러시아 도우는 것 중단 해야해"
<https://yhoo.it/3XWOnLa>

인도 -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UN 특별 총회 결의안 기권표 던진 인도

RA 엄서진(02-768-7021)

인도 금융시장 지표 변동



	2/24	1주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채권(10Y)	7.39	2bp	4.6bp	13.4bp	6.5bp
주가지수	17,465.8	-2.67%	-3.6%	-5.51%	-3.53%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ummary

-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UN 긴급 특별 총회가 열림. 총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으로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 침략 당국인 러시아와 북한 등이 반대표, 친러국으로 분류되는 중국과 인도는 기권표를 던짐
- 인도는 러시아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옴. 특히 러시아제 사드를 공급받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군사 충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기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왔던 것. 최근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도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낮은 유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우랄유 수입을 늘림. 이러한 관계는 외무장관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외무장관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강대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언급

2월 21일 - 시타라만 재무장관,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을 재강조
<https://bit.ly/3kdOG6E>

2월 22일 - 외무장관, "중국 제외한 주요 강대국과 좋은 관계"
<https://bit.ly/3XQnHvE>

2월 23일 - G20에서 새로운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회피
<https://reut.rs/3SrrEGa>

2월 24일 - 블링큰 미 국무장관, "인도의 러시아와의 관계, 멀어지는 중"
<https://bit.ly/3IQ4jdR>
- 통상산업부 장관 고얄, 인도에 적합한 실질금리 1%
<https://bit.ly/3khi8sA>

인도네시아 - 수출업자 수입 규제 개정 막바지

RA 엄서진(02-768-7021)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ummary

- 수출업자 수입에 대한 규제 개정이 막바지에 도달. 지금까지 발표된 바로는 천연자원 수출업자가 외환 수입을 벌어들인 후 3개월동안 수입의 30%를 국내 은행에 예치하도록 할 계획. 인도네시아는 지난 22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나 국내 외환 보유량은 그에 상응하게 증가하지 못함. 수출업자들이 이윤이 낮은 국내 은행 대신 해외에 수입을 보관했기 때문. BCA의 추정에 따르면 작년에만 최소 180억 달러의 수입이 해외에 보관된 것으로 파악. 1월 기준 외환보유액이 1390억 달러임을 고려하면 이는 약 13%에 달하는 규모. 문제는 국내 은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예치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음. 만약 국내 은행에 예치하기 위해서 달러를 루피아로 환전하는 과정이 의무화 된다면 이는 많은 반발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Sri Mulyani 재무 장관은 이러한 종류의 자본 통제 조치가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는 동시에 본국에 수입을 송환 했을 때 분명한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높은 이율 제공, 소득세율 면제, 달러로 투자시 세금 면제 등 분명한 이익을 약속. 해당 규정은 2월 내 개정을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짐

2월 21일 - 인도네시아 정부, 2024년 잔여 인프라 프로젝트 마무리 목표. 2024년 성장률 확대 전망하며 재정적자 폭 축소 전망
<https://bit.ly/3Z2s9IG>

2월 22일 - 조코위 대통령, 현 중앙은행 총재를 유일한 다음 총재 후보자로 지명
<https://bit.ly/3IkU67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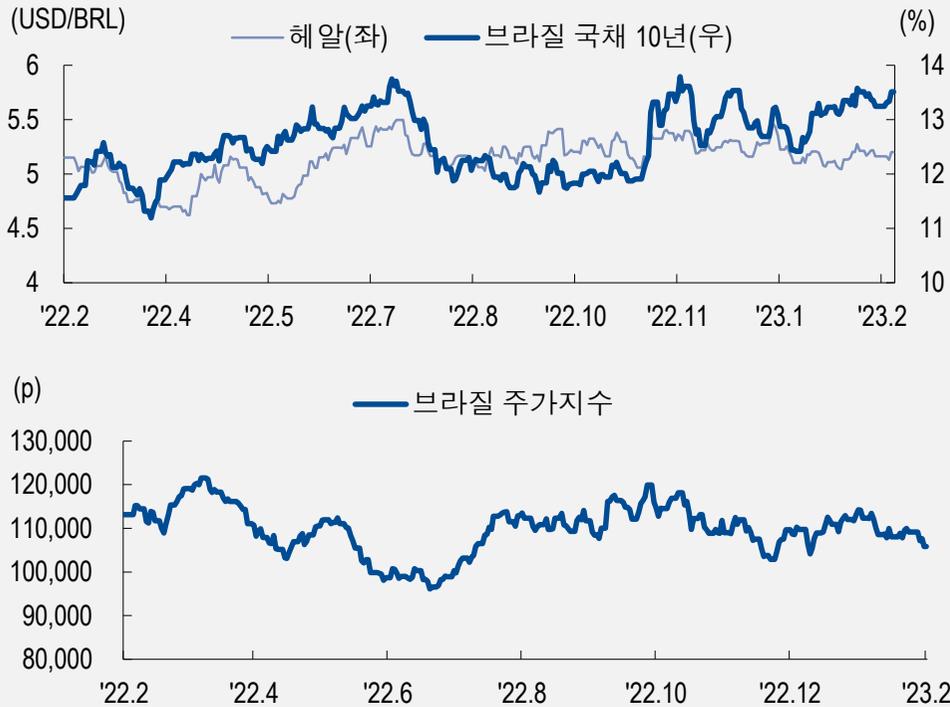
2월 23일 - G20에서 새로운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회피
<https://reut.rs/3SrrEGa>

2월 24일 - 수출업자 수입 규정 도입 논의 이어져
<https://bit.ly/3kw2Qjv>
- 조코위 대통령, 중앙은행 총재 와르지요 연임 추천
<https://yhoo.it/41ooreA>

브라질 - 룰라의 노동당 내 유류세 논쟁

RA 엄서진(02-768-7021)

■ 브라질 금융시장 지표 변동



	2/24	1주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채권(10Y)	13.51	26.62bp	42.95bp	-1.68bp	82.51bp
주가지수	105,798.43	-3.09%	-6.4%	-5.39%	-3.59%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ummary

- 브라질 1월 세수는 예상치 2,430억헤알을 넘어선 2,517억헤알을 기록하며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유류세 면세가 연장되었음에도 높은 기준금리로 금융투자세 및 임금상승에 따른 사회보장세 증가가 이를 상쇄
- 한편, 유류세와 관련한 논쟁이 룰라 대통령의 노동당 내에서 계속되고 있음. 보수소나루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유지. 해당 법안의 경우 대중적 선호도가 높고,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있는 반면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필수적. 때문에 해당 법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음. 이에 대해 Haddad 경제팀은 3월부터 세금 징수를 재개할 것을 발표한 상황이었으나 금요일 룰라의 노동당 하원의원인 Hoffmann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 부통령인 Alckmin은 유류세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음을 밝혔고, 캄포스 네투 중앙은행장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브라질의 재정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견을 밝힌 바 있음

2월 21일 - 브라질 대두 파종 면적 25% 기록, 지난해 동기간 33%를 하회
<https://bit.ly/3IfMJP8>

2월 22일 -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에 인명 피해
<https://bit.ly/3EsRkfy>

2월 23일 - Para주 광우병 발병 확인
<https://yhoo.it/3UkgT7>

2월 24일 - 연방 세수 1월에 1.14% 증가
<https://bit.ly/3KzufvQ>

멕시코 - 중앙은행 회의록 공개, 다음 회의에선 속도조절 있을 것

RA 엄서진(02-768-7021)

멕시코 금융시장 지표 변동



	2/24	1주	1개월	3개월	연초이후
채권(10Y)	9.29	18.5bp	63.5bp	19bp	25.3bp
주가지수	52,686.23	-2.05%	-3.98%	1.36%	8.71%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Summary

- 2주 전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에서 중앙은행은 50bp 인상. 4연속 75bp 인상 이후 50bp로 속도조절이 있었던 12월 통화정책회의에 이어 2월 회의에서 추가적인 인상 폭 조절을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만장일치 50bp 인상으로 다소 매파적인 기조를 보임. 당시의 회의록이 지난 목요일에 공개
- 이사회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보다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경우 22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고점이었던 9월 8.7%보다는 확실히 하락한 모습을 보이며 고점을 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음. 그러나 근원 인플레이션의 경우 지난 11월에 도달했던 최고점인 8.51%에서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8.4% 내외에 머물면서 고점을 벗어 나지 못함. 이에 대해 5명의 이사회 멤버 모두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지속적이라는 우려 표명. 다만 대외 및 대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음 금리 인상에서는 추가적인 폭 조절이 있을 수 있음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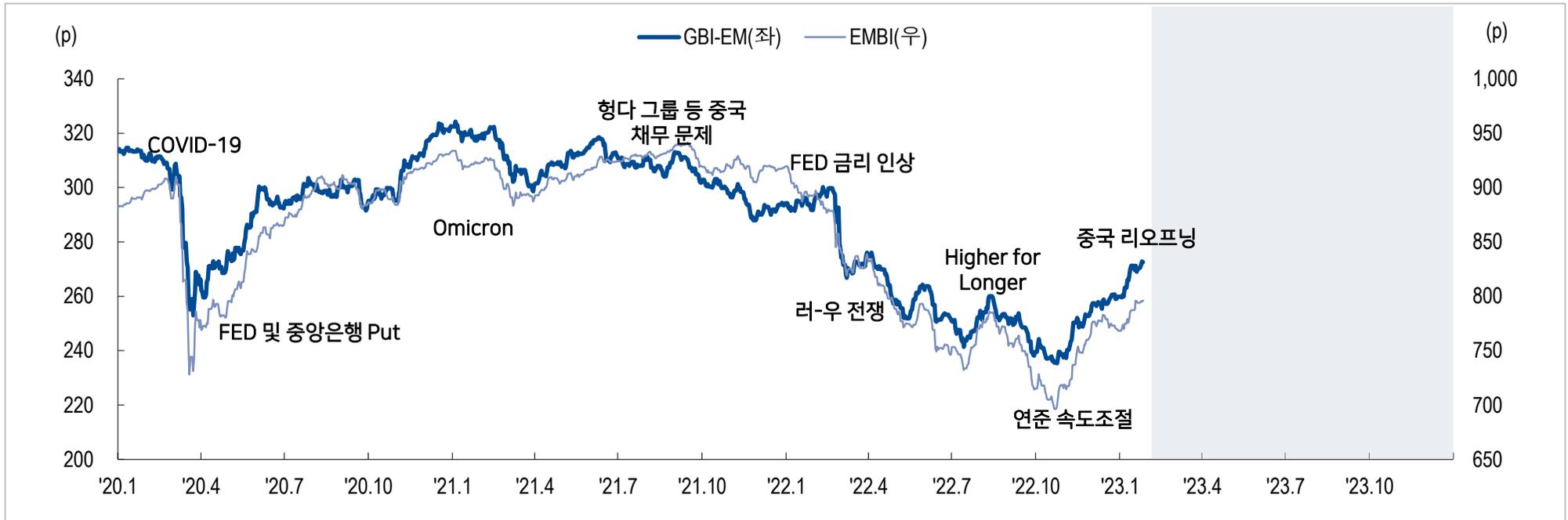
2월 21일 - AMLO, TESLA 등 기업이 미국과 가까운 북부 투자에서 물이 걸림돌이라면 물이 풍부한 남부의 장점을 강조
<https://reut.rs/3XMeq7I>

2월 22일 - 바이든 행정부, 새로운 망명 정책 발표
<https://cnn.it/3XQdu2q>
- 12월 소매판매, 지난 달 대비 0.1% 증가
<https://bit.ly/3lpOGZc>

2월 23일 - AMLO, 전 공공안전부 장관 Garcia Luna가 미 의회에서 뇌물수수죄로 유죄를 받아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
<https://bit.ly/3ZgQGtt>

2월 24일 - 2월 인플레이션 7.76%, 예상치 7.8% 하회
<https://bit.ly/3INcWGe>
- 중앙은행 회의록 공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속도조절 가능성 제시
<https://bit.ly/3xOO62w>

[Appendix. I] 신흥국 채권 지수 가격 추이 및 향후 전망



	1Q20	2Q20	3Q20	4Q20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2Q23	3Q23	4Q23
GBI-EM	300.41	281.77	298.24	308.44	314.22	310.96	308.38	295.97	287.27	260.40	249.84	248.26	271.77	275.65	282.36	292.03
금리(%)	5.15	4.81	4.44	4.36	4.53	4.94	5.02	5.61	6.08	6.79	6.94	7.11	6.51	6.32	6.20	5.70
EMCI(p)	1631.63	1575.18	1618.00	1682.65	1717.31	1731.10	1728.61	1728.35	1733.90	1696.73	1642.04	1616.84	1699.90	1705.00	1728.33	1761.67
Return(%)	-1.67	-6.21	5.84	3.42	1.88	-1.04	-0.83	-4.02	-2.94	-9.35	-4.06	-0.63	9.47	1.43	2.43	3.42
EMBI	867.81	821.41	894.10	909.45	911.41	912.32	931.24	917.31	868.95	784.56	756.91	742.67	803.55	813.32	830.38	854.65
금리(%)	5.11	5.87	4.76	4.58	4.65	4.76	4.61	4.91	5.73	6.90	7.65	8.19	7.16	6.98	6.68	6.27
스프레드(bp)	362.43	507.09	395.28	356.89	322.80	311.30	319.42	330.44	368.23	388.98	437.83	420.54	357.42	353.33	330.00	306.67
Return(%)	-0.03	-5.35	8.85	1.72	0.22	0.10	2.07	-1.50	-5.27	-9.71	-3.52	-1.88	8.20	1.22	2.10	2.92
USD/KRW(%)	1,192	1,221	1,188	1,120	1,113	1,121	1,157	1,182	1,204	1,258	1,337	1,361	1,246	1,210	1,180	1,170

주: GBI-EM Global Div. EMBI Global 기준, 1Q 지표는 1/27 기준이며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수익률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